

# 예비노인층과 노인층 자살률의 지역별 현황과 요인 및 정책과제

김형수

호서대학교 일반·벤처대학원/HS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 The Regional Current Status and Factors of the Pre-Elderly/Elderly Suicide Rates and Policy Tasks

Hyoung-Soo Kim

Professor,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HS Research Center of Social Welfare

**요약** 본 연구는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지역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검토하고,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또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의 격차요인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노인집단 자살 예방서비스의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10년(2006-2015)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노인집단 자살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집단 자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예산비중, 이혼율, 경제활동 참가율, 재정자립도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연령대별과 지역특성별로 노인집단 자살률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지원 하에 지역차원에서의 연령대별 예방대책의 수립을 제언하였다.

• 주제어 : 예비노인층, 노인층, 지역특성, 자살률, 정책과제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us and trends of regional elderly group(pre-elderly and elderly segment)'s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to analyze the relevance of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and to understand differential factors of elderly group's suicide rates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small-medium sized areas. For this, analysis on relevance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elderly group's suicide rates has been done using regional statistical data for the past ten years(2006~2015)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ccording to research findings, Socio-economic factors such as welfare budget ratio, divorce rates, economic activity rates, and financial independent rates have shown different effects on elderly group's suicide rates by age rang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tasks for alleviating suicide rates of elderly group.

• Key Words : elderly segment, policy tasks, pre-elderly segment, regional characteristics, suicide rates

### 1. 서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증가추세는 연령 계층별로 동일하지 않으며, 연령은 자살행위의 중요한 예측 요인

\*Corresponding Author : 김형수(kimhs@hoseo.edu)

Received May 12, 2017

Accepted August 20, 2017

Revised July 29, 2017

Published August 28, 2017

의 하나이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자살자수에서 예비노인층을 포함한 노인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집단 자살률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후기노인 자살률은 압도적으로 높다. 최근 들어 예비노인층인 베이비부머들의 자살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는 집단이다[1]. 이들은 연령상 아직 노인 집단은 아니지만, 2020년이면 노년기에 진입하게 되어 소득상실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심리적 위험 때문에 자살에 노출될 수 있는 집단이다. 노인집단 자살의 위험요인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일차적인 이유는 노인은 동일한 집단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50대와 60대 초반의 예비노인층(베이비부머 세대)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자살위험 요인은 다를 수 있다. 연령 계층별로 자살률의 추이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은 연령 계층별로 적절한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2]. 그러므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별 자살요인과 특성을 연구하고 파악하는 것은 다양한 노인집단을 보다 잘 이해하여 노인집단 자살의 유용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화된 노인집단 자살의 예방 전략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3].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집단의 자살률의 증가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제 노인집단의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의 일 유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예비노인층 자살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자살의 요인에 관한 미시적 연구에 치중하여 있고, 소수의 거시적 연구도 지역별 자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사회구조적인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자살이라는 문제도 사회경제적인 특성의 영향을 받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4].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살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영향의 크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5,6].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자살의 관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을 포함하는 노인집단의 자살률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살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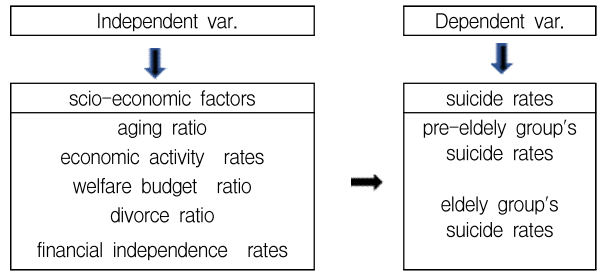
거시적 관점에서 자살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Durkheim의 사회통합이론이다. 사회통합이 약화될 때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것이 그 이론의 핵심이다[7]. 인구의 고령화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그중의 하나는 노인부양비 증가로 인하여 자녀와 부모세대 간의 사회통합의 약화를 유발하여 노인집단의 자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8]. 우리나라에서 이혼으로 인한 가족통합의 약화는 자녀양육, 노인부양, 외로움 등의 문제와 연결되므로 노인집단의 자살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9]. 주요 OECD국가들은 경제성장률이 저하된 시기에도 자살률이 낮아지거나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복지제도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어 자살을 막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사회의 지역별 연구결과에서도 공공복지지출과 공공의료지출이 자살률과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0]. 국내의 경우 낮은 공공사회지출로 인하여 경제위기 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1]. Durkheim이 경제적 불안정이 사회통합의 약화로 인한 자살률 증가를 초래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살의 경제학적 관점도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12]. 기존 연구결과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 경기성장률, 소득수준 등의 경제적 요인들이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13,14,15,16].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 지역별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현황과 추이를 검토하고, 지역(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간 노인집단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또 노인집단 자살률의 고위험지역의 특성과 자살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노인집단 자살 예방서비스의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및 모형

본 연구는 지역별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을 포괄하는 노인집단의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지표 관련 통계자료를 근거로 연구목적에 부합한 자료들을 이차적으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16개 지역의 2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 집단인 예비노인층은 50-64세로 구성할 것이고, 두 번째 집단인 노인층은 65세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의 지역별 자살률에 기초하여 한국의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률의 현황과 추이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노인집단 자살률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요인과 자살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예비노인층 자살률(50-64세 해당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과 노인층 자살률(65세 이상 해당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이고, 독립변수에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된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중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자료수집이 가능한 고령인구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한 사람의 비율),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 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자수), 복지예산비중(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비중)을 포함하였다.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집단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요인과 노인집단 자살률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 3. 지역별 노인집단(예비노인과 노인층)의 자살률 현황

#### 3.1 지역별 예비노인층과 노인층 자살률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6개시도의 연도별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 자살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지난 10년간 등락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2009년도부터 자살률이 상승하다가 2012년부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비노인층의 경우, 충남 지역과 강원지역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높았으며, 전반(2006-2010)은 충남지역에서, 후반(2011-2015)은 강원지역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지역에서 예비노인층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인층의 경우도 충남과 강원지역의 자

<Table 1> Trend of change of the suicide rates by regions

Regions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pre-elderly	elderly
Seoul	26.6	54.5	25.0	58.4	27.0	57.5	34.6	63.3	34.0	65.1	34.0	64.4	32.7	54.1	33.7	55.1	32.2	50.3	28.0	53.1
Busan	34.3	67.9	33.7	65.5	33.1	64.9	42.0	66.3	44.4	74.5	38.8	67.1	37.9	57.5	39.8	50.8	33.8	49.0	39.5	50.7
Daegu	33.4	61.8	32.1	52.0	37.4	60.9	41.5	67.8	38.3	69.2	42.6	67.9	31.5	51.1	34.8	55.3	38.0	46.0	37.4	57.7
Incheon	39.5	78.1	33.8	76.0	35.9	82.2	50.1	90.1	47.2	86.9	49.1	82.1	38.8	92.4	39.1	89.2	44.4	60.0	36.6	67.6
Gwangju	32.6	38.0	31.7	62.8	26.3	56.0	42.4	57.7	37.4	71.9	35.4	65.1	31.9	56.0	30.3	49.0	30.0	48.6	26.6	50.1
Daejeon	40.9	81.7	27.1	94.7	34.2	64.3	37.4	78.8	32.3	90.7	37.6	75.9	30.3	76.7	31.1	59.8	40.9	56.8	35.7	65.4
Ulsan	36.7	62.1	26.8	84.6	32.1	76.4	35.6	67.0	40.0	64.3	38.7	61.6	33.9	65.6	38.3	58.1	33.3	53.4	31.4	59.4
Gyeonggi	37.0	84.8	31.9	83.0	33.8	78.8	43.7	85.7	42.4	91.1	45.6	90.5	38.0	79.6	40.6	72.7	38.0	61.3	34.9	64.6
Gangwon	46.3	102.3	52.7	100.5	48.1	107.7	55.2	101.6	56.2	117.9	58.0	106.5	48.2	91.6	46.4	85.3	46.8	75.3	44.9	69.6
Chungbuk	37.3	94.0	43.7	90.6	45.8	87.7	52.2	117.2	47.6	91.8	54.3	99.8	43.4	105.2	48.1	80.2	43.1	65.7	41.5	63.5
Chungnam	50.1	88.9	46.5	109.5	48.1	97.0	55.9	124.4	57.2	123.3	55.3	127.1	47.2	96.8	48.0	90.6	41.6	76.2	44.4	79.5
Jeonbuk	41.4	66.6	45.8	82.5	34.4	78.7	39.7	91.3	39.6	82.9	52.2	83.9	35.9	62.6	38.0	64.4	39.3	45.7	33.5	54.4
Jeonnam	35.8	42.7	34.0	50.5	35.3	48.3	42.7	53.1	46.0	60.9	44.0	69.4	39.4	59.0	34.2	57.6	35.3	52.0	36.1	58.2
Gyeongbuk	36.2	74.0	40.5	70.0	37.7	62.5	45.9	73.9	44.3	81.4	42.2	71.6	37.8	71.0	43.9	55.4	32.3	51.9	35.9	46.8
Gyeongnam	40.6	90.1	38.2	91.8	36.7	82.9	40.8	75.8	42.1	81.4	46.1	71.1	35.1	60.6	38.5	53.6	34.8	50.1	37.0	53.6
Jeju	33.1	43.7	39.4	53.1	54.7	52.4	53.6	50.4	54.6	51	40.6	76.7	37.7	61.2	46.2	54.7	30.4	46.2	35.0	39.6

&lt;Table 2&gt; Descriptive statistics of dependent &amp; independent variables by regions

region	pre-elderly group's suicide rates	elderly group's suicide rates	aging ratio	divorce ratio	welfare budget ratio	economic activity rates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Seoul	30.8	57.6	10.1	2.1	28.6	62.3	88.9
Busan	37.7	61.4	11.7	2.2	33.3	57.6	59.4
Daegu	36.7	59.0	10.4	2.0	33.5	59.7	56.8
Incheon	41.5	80.5	8.9	2.7	29.1	62.9	69.4
Gwangju	32.5	55.5	9.3	2.1	36.2	58.8	49.5
Daejeon	34.8	74.5	8.9	2.1	33.8	59.9	61.0
Ulsan	34.7	65.3	7.1	2.3	24.0	60.4	69.2
Gyeonggi	38.6	79.2	8.9	2.5	24.2	62.2	72.6
Gangwon	50.3	95.8	15.0	2.4	18.3	58.4	27.2
Chungbuk	45.7	89.6	13.4	2.3	22.1	61.1	33.5
Chungnam	49.4	101.3	15.1	2.4	20.0	63.9	36.1
Jeonbuk	40.0	71.3	15.6	2.2	23.4	59.3	24.9
Jeonnam	38.3	55.2	18.6	2.2	18.9	63.8	21.1
Gyeongbuk	39.7	65.9	15.8	2.1	19.9	64.1	28.6
Gyeongnam	39.0	71.1	12.1	2.3	21.2	61.4	41.3
Jeju	42.5	53.1	12.3	2.6	13.8	68.0	29.2

살률이 높았는데, 초반(2006-2008)에는 강원지역이 제일 높았으나 2009년 이후에는 충남지역에서 해당 인구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서 광주와 전남지역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노인층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2 지역별 예비노인층과 노인층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현황

연구대상인 16개 시도별 10년간(2006-2015) 주요 변수들의 평균을 보면 <Table 2>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예비노인층 자살률은 지난 10년간 강원(50.3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충남(49.4명), 충북(45.7명) 순서로 나타났다. 다른 종속변인 노인층 자살률은 충남(101.3명), 강원(95.8명), 충북(89.6명) 순으로 밝혀졌다. 독립변수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지역(18.6%) 이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제주지역이 68.0%로 가장 높았으며, 재정자립도와 이혼율 그리고 복지예산비중은 각각 서울 88.9%, 인천 2.7%, 광주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집단의 자살률이 높은 충남지역과 강원지역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특히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도시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중소도시지역의 복지예산비중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 4. 노인집단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관련성

### 4.1 노인집단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관분석

<Table 3>에 제시한 16개 시도 노인집단자살률과 독립변인과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예비노인층 자살률은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비중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고령화비율과 이혼율과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노인층 자살률은 이혼율, 복지예산비중,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복지예산비중과 자살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이혼율과 자살률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고령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와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상관관계 분석만으로는 노인집단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유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변수들의 존재로 인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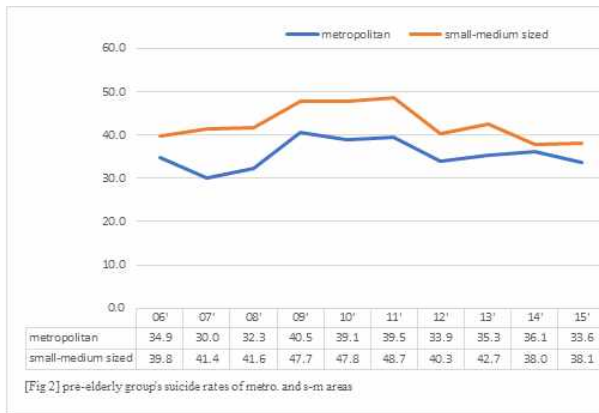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lderly group's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variables.

factor	pre-elderly suicide rates	elderly suicide rates
aging ratio	.355**	.012
economic activity rates	0.079	-.168*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0.466	-.122
divorce ratio	.305**	.345**
welfare budget ratio	-0.348	-.312**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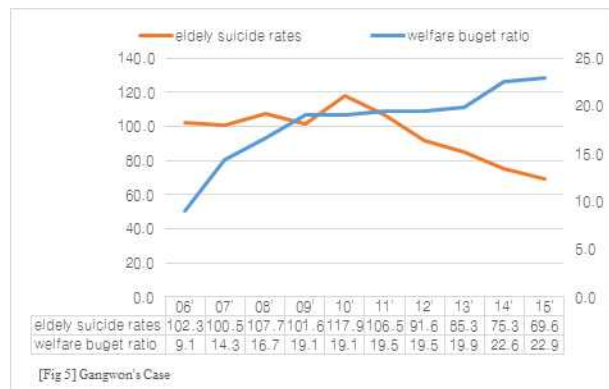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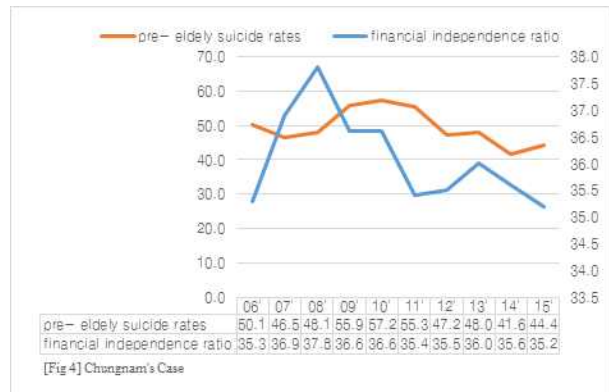
### 4.2 노인집단 자살 고위험지역과 사회경제 요인의 연관성

[Fig. 2-3]와 같이 대도시지역 보다 중소도시 지역에서 노인집단 자살률(예비노인층 자살률과 노인층 자살률 공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간 변화추이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지역 중 충남과 강원 지역이 노인집단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이들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고령화비율도

높지만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비중이 타 지역 보다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드러났다. 가령, [Fig. 4, 5]와 같이 충남의 예비노인층 자살률과 재정자립도는 반비례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강원도의 노인층 자살률과 복지예산비중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고위험 지역에서 예비노인층의 일차적 자살예방을 위하여 중소도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노인층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복지예산비중을 증액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판단된다.



### 4.3 지역별 노인층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다중회귀분석

노인집단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보다 엄격한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역규모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지역의 경우,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로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참가율(-.424), 이혼율(.343), 복지예산비중(-.29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노인층 자살률에 이혼율(.495)이, 중소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율(-.609)과 복지예산비중(-.282)이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Table 4> Impa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elderly suicide rates: regression analysis

		$\beta$	t	P
entire areas	aging ratio	.086	.701	.485
	divorce ratio	.343	3.902***	.000
	welfare budget ratio	-.297	-3.007**	.003
	economic activity rates	-.424	-5.398***	.000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024	-.187	.852
metropolitan areas	aging ratio	-.363	-1.978	.052
	divorce ratio	.495	3.674***	.000
	welfare budget ratio	.239	.963	.339
	economic activity rates	.009	.060	.952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011	.060	.953
small and medium sized areas	aging ratio	-.013	-.074	.941
	divorce ratio	.129	1.103	.273
	welfare budget ratio	-.282	-2.218*	.029
	economic activity rates	-.609	-6.490***	.000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174	.970	.335

\*p<0.05, \*\*p<0.01, \*\*\*P<0.001

#### 4.4 지역별 예비노인층 자살률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다중회귀분석

전체지역은 예비노인층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표준화 계수로 분석한 결과, 이혼율(-.427), 재정자립도(-.383), 경제활동참가율(-.15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이혼율(.637)이, 중소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재정자립도(-.430), 이혼율(.306), 경제활동참가율(-.277) 등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

<Table 5> Impact of socio-economic factors on pre-elderly suicide rates: regression analysis

		$\beta$	t	P
entire areas	aging ratio	.186	1.603	.111
	divorce ratio	.427	5.102***	.000
	welfare budget ratio	.019	.199	.843
	economic activity rates	-.155	-2.071*	.040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383	-3.199**	.002
metropolitan areas	aging ratio	.118	.608	.545
	divorce ratio	.637	4.494***	.000
	welfare budget ratio	.327	1.254	.215
	economic activity rates	-.093	-5.90	.557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110	-5.58	.578

small and medium sized areas	aging ratio	-.164	-.799	.426
	divorce ratio	.306	2.301*	.024
	welfare budget ratio	.041	.280	.780
	economic activity rates	-.277	-2.584*	.011
	financial independence rates	-.430	-2.100*	.039

\*p<0.05, \*\*p<0.01, \*\*\*P<0.001

## 5. 결론

노인집단 연령대별과 지역별 자살현상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인집단(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률은 경제활동참가율, 이혼율, 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 등의 다양한 지역별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노인층 자살률은 이혼율, 재정자립도, 경제활동참가율과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도시지역(특별·광역시)은 이혼율이, 중소지역(도 지역)은 재정자립도와 경제활동참가율이 예비노인층 자살률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노인층 자살률은 경제활동참가율, 이혼율, 복지예산비중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도시지역은 이혼율이, 중소지역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복지예산비중이 노인층 자살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노인집단인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률이 대도시보다 중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재정자립도와 복지예산비중이 낮은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노인집단의 자살률이 월등히 높아서 노인집단 자살의 고 위험 지역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집단 자살과 관련성이 있고, 지역 간 사회경제적 요인이 노인집단인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노인집단 연령대별 지역별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감소시키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특성과 연령집단별에 따라 자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노인집단의 자살예방 대책은 중앙정

부의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예산지원 하에 지역차원에서 예비노인층과 노인층의 연령대별 자살 예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비노인층과 노인층 공히 자살률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혼율을 낮추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도시지역에 역점을 두고 장년층 이후 증가하는 황혼이혼의 예방과 대책이 요구되며, 또한 자녀의 이혼으로 불안정한 가정과 경제적 곤란을 겪는 노인집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자살에 이르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노인집단 본인이나 성인자녀의 이혼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가족에 대하여 특별·광역에서 우선적으로 정서적 상담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고령층으로의 이동과 여성노동인구의 경력단절 그리고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소도시 지역에 역점을 두고 고용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소득향상 등 정부의 정책입안을 통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그 효과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노인층을 대상으로 그 자살률의 증가를 집중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중소지역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율의 차등적인 인상과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사업의 국비전담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노인층을 중점 대상으로 그 자살률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중소지역의 복지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대도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 상당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집단 자살률은 대도시지역 보다 중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충남과 강원 지역이 자살 고위험 지역으로 판명되었다. 일차적으로는 이들 중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특히 재정자립도와 복지수준의 향상)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차적으로는 지역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자살예방 전담기구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별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으나 우울 등 정신질환 예방과 개입에 중점이 있으며 그마저도 청소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집단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 고위험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여러 분야의 행정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요망된다.

끝으로, 2020년 이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인 예비노인층이 노인층에 진입한다. 이로 인하여 노인집단 자살률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은퇴 이후의 베이비부머는 급여단절로 중요한 소득을 상실하게 되며,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차원의 정년연장과 노동자의 임의 해고방지 및 정부차원의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5학년도 호서대학교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15-0326)

## REFERENCES

- [1] H. S. Kim, M. J. Park, "Suicidal Ideation and Affecting Factors in Male Korean Baby Boomer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9, No. 1, pp. 67-78, 2015.
- [2] S. Y. Lee., *Determination Factors of Suicidal Risk and Regional Gap Factors*, KIHASA, 2014.
- [3] A. Paraschakis, "Late onset suicide: Distinction between young-old vs. old-old suicide victims. How different populations are they?",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 Vol. 54, pp. 136-139, 2012.
- [4] H. S. Kim, S. H. Kim, "Elderly's Suicide and Their Factors: Focusing o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in Korea",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s*, Vol. 14, No. 11, pp.215-224, 2014.
- [5] Y. H. Noh, "An Economic Analysis of Suicide: The Korean Panel Evidence", *Economic Research*, Vol. 54, No. 3, pp. 177-200, 2006.
- [6] G. W. Kim, H. G. Kim, "Macro Analysis of Factors Impacting on the Elderly's Suicide Rates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Vol. 34, No. 3, pp. 31-54, 2011.
- [7] So-Chung Lee, "Socio-economic Factors of Elderly

- Suicide”,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6, No. 4, pp.1-21, 2010.
- [8] D. H. Han, “A Study of the Trends and Determinants of the Elderly Criminals in Aging Society”,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Vol. 12, No. 2, pp.87-109, 2008.
- [9] Jung-Kyun Ryu, “Regional Differentials in Elderly Suicide Rates: the focusing on effects of family instability, 1995-2005”,. Vol. 31, No. 2, pp21-44, 2008.
- [10] C. Minoui, A. Andres, “The effect of public spending on suicide on suicide: Evidence from U.S. state data”, J Socio Econ, Vol. 37, No. 1, pp.237-261, 2008.
- [11] Y. J. Park, M. H. Kim, S. M. Kwon, Y. J. Shin, “The Association Between Public Social Expenditure and Suicide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42 No.2, pp.123-129, 2009.
- [12] H. S. Kim, L. K. Kwon,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o-economic Factors in Korea: centering around the trend of changes in 1990-2010”,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s, Vol. 13, No. 6, pp.236-245, 2013.
- [13] S. H. Shim, “Welfare Science and Technology Responsive to Ageing”, Science Technology Study, Vol. 2, No. 2, pp.145-189, 2002.
- [14] S. Y. Kim, “Trends in Elderly Suicide Rates and Social Factors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Vol. 19, pp. 181-205, 2004.
- [15] A. Andres, “Income inequality, unemployment, and suicide: A panel data analysis of 15 European countries”, Appl Econ, Vol. 37, No. 4, pp. 439-451, 2005.
- [16] E. Kang, “Compositional and Contextual Factors Related to Area Differentials in Suicid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 30, No. 1, pp.41-52, 2013.

저자소개

김형수(Hyong Soo Kim)

[정회원]



- 1995년 5월 :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 박사(사회학)
- 1997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일반·벤처대학원

<관심분야> : 노인문제, 노인복지, 실버복지경영